

BioProcess 10월31일 서울 개최

세계 바이오 의약품산업의 기술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<BioProcess International Asia Pacific>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.

IBC Life Science 주최로 열리는 행사에는 아시아의 생명공학과 생명 공학적 프로세스, 제조가 가져다 줄 시장기회를 주요 현안으로 다룰 계획으로, 아시아의 고품질·저비용의 노동력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, 경이적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전략적 제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, 아시아의 무한한 시장 잠재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.

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, 중국, 인디아,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, 유럽 지역의 바이오 제약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.

또 아시아 지역(한국·중국·일본)의 연구활동이 매우 활발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 참가자의 참가가 크게 늘어났으며, 세계적인 바이오제약기업 종사자가 대거 참여하는 등 질적인 구성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학회의 주요 연사로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이끌고 있는 Genentech, GE Healthcare, Chugai Pharmaceuticals 등이 참여하고 항체 치료제의 개발 과정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규제와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.

국내기업으로는 최근 항체치료제 클로티넵을 개발한 이수애플리스가 연사로 참여해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신약 및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항체치료제 Biosimilar 개발과정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. <김 은 기자>

<화학저널 2007/10/23>